

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현장 직무 역량 최우수상

김○삭(동아시아물류학부)

학보사 기자활동

내 용

1. 학보사를 신청하게 된 동기

20살, 나는 세상을 바꾸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2014년 3월 입학식, 아직 추운 날씨에 파란 후드 티를 맞춰 입고, 빨갛게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신문을 나눠주던 선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부끄러운 듯 목례하며 건네는 신문을 잡아챘고, 낮가림이 심한 덕택에, 그 정신없었던 OT 일정에도 신문 한 귀퉁이에 적힌 [수습기자 모집]이라는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사회경험이라고는 수능이 끝나고 난 뒤 몇 개월의 아르바이트뿐이던 나에게 레스토랑의 “저기요”로 통칭되던 직책이 아닌 수습”기자”라는 직책은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신청서를 쓰게 했다.

2. 학보사 참여 경험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과정, 참여과정에 대한 노하우 등)

그렇게 학보사에 들어간 후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 선배들과 담당 교수, 간사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글쓰기였다. 주어진 분량을 채워야 하는 기사작성을 위해 기성 메이저 신문의 기사를 수기로 옮겨 적는 과제나, 매주 자유주제의 에세이 한편을 작성하는 과제를 통해 글쓰기 자체의 거부감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자체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더 나아가 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인 카메라를 다루는 법이나, 취재를 요청할 때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한 마디 한마디 모두 외우고, 전국의 대학 신문사들과 함께 대학신문 세미나에 참석해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한사람의 구성원이 됐다. 그렇게 3년 동안 수습기자, 정기자, 편집장까지 3년 동안 학보사를 하며 늘 즐겁지는 않았다. 책임감과 성실이 모두 필요했다. 매달 한 개의 신문을 내기 위해 대학, 취업, 사회, 문화를 기획해야 하며, 직접 섭외, 취재, 사진 촬영, 인터뷰하는 과정을 겪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매주 모여서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마지막 주에는 모든 인원이 야간까지 오탈자를 점검한 뒤, 신문이 발행된다.

한 달의 결과물을 위해 12명의 인원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선후배간의 정도 깊어지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된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작업물을 함께 창작해 낸다는 동질감에서 오는 창조적 기쁨 등이 물리적인 힘듦과 충분히 등가교환 되는 가치라고 생각했다.

3. 학보사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및 성과

학보사를 통해, 이전과 또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도망치던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며 ‘끈기’를 배웠다. 대학, 사회, 교양, 문화면의 기사들을 두루 다루며 해당 주제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능동적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도 있었다. 장학금과 소정의 식대를 지원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며, 더 좋은 점은 나 자신의 가치제고에 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며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켰고, 훈련된 논리적 사고는 삶 전반에 걸쳐 장점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글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표현해야하는 수많은 상황들에서까지. 예를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책을 읽을 때, 자신을 돌아볼 때,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유수의 외부 공모전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주변에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이 퍼져 자기소개서의 첨삭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다. 글 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던 나로서는 정말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보사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종이로 된 활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 학보사의 자체적인 시스템은 훌륭하나,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SNS, 커뮤니티 형성 등의 방법으로 시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만든 신문은 물론, 교내 신문, 성결대학보의 존재유무 자체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의 노력과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5. 학보사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어둠이 짙게 배인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노트북의 타자 소리를 기억한다. 매달 기사를 작성하

기위해 고생 한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취재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내 눈과 손을 스쳐간 수많은 원고들과 스물 네 개의 신문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얻게 된 열거 불가능한 모든 설렘을 기억한다.

기자나 언론사 또는 방송 계열 취업을 꿈꾸는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학보사는 값진 경험이 되는 활동이다. 글쓰기는 물론,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함께 취재활동을 통해 타과생들과 친해지기도 하며, 자연스레 소속감을 얻고, 좋은 선배, 좋은 후배를 만날 수 있다. 꿈 많은 스무 살로 입학한 나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꾀다.

내가 느꼈던 이 수많은 기쁨과 설렘, 삶의 가치를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됐으면 한다. 미디어가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는 뜨거운 청춘이라는 말이 각자의 삶으로 실증되는 경험. 학보사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다.